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23>

JCCT 2022-11-64

## 코로나-19시대 아동의 가정 및 학교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the Age of Covid-19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endence on Smartphones

홍문기\*

Hong, Moonki\*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폭력피해경험을 살펴보고, 피해경험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W지역 14곳에 재학 중인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경험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해지며, 위기가정일수록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필요, 셋째, 코로나 19에 대한 사전예방적 논의필요, 넷째, 아동참여와 활동 등 온라인 활동으로 병행한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주요어** : 아동정신건강, 가정폭력, 학교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코로나-19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how children's mental health is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at home and school after Covid-19, as well as how these victim experiences relate to children's mental health. This study surveyed 650 students from 14 middle schools in Wanju, Korea.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experience of violence and mental health was investigated. Major research findings: First,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martphone dependence. Seco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Third,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smartphone depend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esent a convergent intervention and practice strategy for children in the Covid-19 era to cop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nd expand the support system.

**Key words** : Mental Health of Children,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Covid-19

\*정희원, 완주군청 주무관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본 논문은 2021년 7월 1일에 개최된 한국융합학회 국제학술대회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in 202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moonki0124@gmail.com

County of Wanju, Korea

## I. 서 론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시스템으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불안, 42.5%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코로나는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코로나 블루(Corona Blue)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더 크다. 학교교육의 공백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역 교육환경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1].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활동공간 등의 부재는 가족 돌봄기능에 과부하로 이어진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였고(77.5%), 생활습관이 불규칙화(74.2%)되면서 보호자의 자녀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 이는 보호자와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기술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아동에게 언제 가해질지 모르는 폭력에 긴장하며 위축되기 마련이고, 폭력이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될 경우, 비행이나 일탈,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유엔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되면서, 아동의 지지요인은 낮아지는 반면, 위협요인은 증폭되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3].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친구, 가족, 교사, 사회적 관계에서 만족도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 이전 6.41점에서 코로나 이후 4.14점으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답답함(59.6%), 불안과 걱정(27.1%), 우울감과 두려움(7.9%)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친구관계는 아동기에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 2명 중 1명이상이 친구관계에 의해 학교생활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보다 친구가 더 강력한 사회적 지지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관계망

형성이나 과업해결이 온라인 활동으로 증가하면서 관계형성이 잘 되지 않은 아동은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또래관계 만족도가 낮은 아동은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경험으로 연결되고, 폭력피해를 받은 아동일수록 폭력가해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매우 높다. [5] 또래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우울감과 불안감의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 상실, 문제행동 등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은 자신을 스스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거절을 못하는 불균형의 감정표현을 가지고 있다. 가해학생은 공감능력의 부족, 갈등조절을 못하는 공격적 성향,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불안감과 공격성이 유의미하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6][18]

코로나로 인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고,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초·중·고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동안 가장 많이 한 활동으로 동영상 시청(49%), 집에서 게임(20.6%) 등 미디어 사용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 전후 핸드폰 평균 사용시간은 코로나 이전 4~6시간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36%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동시간대 핸드폰 이용시간이 41%로 증가하였다. [7] 코로나 19이후 미디어를 권장시간 이용한 아동과 과다시간 이용한 아동의 정서상태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를 과다시간 이용한 아동이 권장시간을 이용한 아동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3].

스마트폰 노출은 코로나 19이후 학교에 가지 못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더 극대화되었다. 장기화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부족, 비만 등 건강, 정서,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신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8] 코로나 감염확산 지역의 격리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집착, 부주의, 짜증과 과민증세가 모든 아동에게 나타났으며 [9], 스마트폰의 부적절한 콘텐츠 및 폭력의 노출 증가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극도로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활동 등의 플랫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조사나 정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초래하고, 학교중퇴율 증가, 취약계층 아동일 경우 더 많은 범죄와 학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8].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가 우울 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아동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할 비율이 매우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동은 지적,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등 발달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3].

우리사회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보다 소홀히 다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신력의 나약함으로 둔갑시켜 방관하거나, 아동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여 부모의 훈육 대상으로 여겨왔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생력이 낮고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심리적, 정서적, 지적 성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 이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에 이르렀을 경우 공격성과 일탈 등 비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시대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분석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W지역 중학교 14곳에 재학 중인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623부이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41부를 제외하고 5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의 작성상의 문제점이나 조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 이전에 설문지의 구성 적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박사급 연구자 2명으로부터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의 방식과 설문 응답 형태, 설문지의 전체적인 구성을 수정·보완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7문항), 불안(6문항), 공격성(6문항)으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11]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정폭력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12]의 아동학대척도(16문항), 학교폭력피해경험은 서미정[13] (14문항)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Ministry of Science and ICT[14]의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 학교폭력피해, 스마트폰과의존,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정신건강과 주요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과 Kenny [15]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 즉 매개회귀 분석(Mediating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특성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301명(51.7%)이며, 여학생 281명(48.3%)이었고, 중학교 학년은 2학년이 35.4%, 1학년 33.7%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y	Number	percentage
sex	male	301	51.7
	female	281	48.3
middle school grades cluster	1	196	33.7
	2	206	35.4
	3	180	30.9
economic status	very bad	14	2.4
	bad	35	6.0
	average	287	49.3
	good	167	28.7
	very good	79	13.6
academic status	very bad	15	2.6
	bad	82	14.1
	average	275	47.3
	good	151	25.9
	very good	59	10.1

그리고 3학년이 30.9%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사항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보통수준 이상으로(49.3%) 응답하였고, 좋은 수준이 42.3%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은 응답자의 83.3%가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 특성은 표 2 와 같다.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의 전체평균은 1.667(SD=.550), 매개변수 스마트폰 과의존의 전체평균은 1.857(SD=.701)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가정폭력경험의 평균은 1.354(SD=.465), 학교폭력경험의 평균은 1.468(SD=.628)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특성(N=582)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582)

category	Variables	Min.	Max.	Mean	S.D.
dependent variable	mental health	1.00	4.00	1.667	.550
variable	smartphone overdependence	1.00	4.00	1.857	.701
independent variable	domestic violence	1.00	5.00	1.354	.465
	school violence	1.00	4.44	1.468	.628

3. 주요변수 상관관계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 과 같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42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그리고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617 모두 .01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주요변수 상관관계  
Table 3. Characteristic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mental health
domestic violence	1	.293***	.177***	.261***
school violence	.293***	1	.185***	.335***
smartphone overdependence	.177***	.185***	1	.425***
mental health	.261***	.335***	.425***	1

\*\*\*p<.001

4. 아동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정신건강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표 4 와 같이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분석에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제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모델 1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아동의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16.3%였으며, 이러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가정폭력경험( $\beta=.108, p<.01$ )과 학교폭력경험( $\beta=.137, p<.01$ )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 $\beta=-.103, p<.01$ ), 학년수준( $\beta=.237, p<.001$ ), 학업수준( $\beta=.142, p<.001$ ), 경제적 수준( $\beta=-.095, p<.05$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아동의 가정폭력경험( $\beta=.176, p<.001$ )과 학교폭력경험( $\beta=.289, p<.001$ )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 정신건강과 매개변수인 스마트폰과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3의 결과,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이 28.3%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독립변수인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55, p<.001$ ).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가정폭력, 학교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매개효과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mental health adjustment

classification		model 1		
		B	$\beta$	t
constant term		1.670		8.391***
control variable	sex (0=male, 1=female)	-.144	-.103	-2.650**
	grades cluster	.207	.237	5.939***
	economic status	-.038	-.095	-2.348*
	academic status	-.109	.142	-3.652***
independent variable	domestic violence	.163	.108	2.711**
	school violence	.153	.137	3.437**
mediation variable	smartphone overdependence			
R <sup>2</sup>		.172		
Adj. R <sup>2</sup>		.163		
F		19.896***		
R <sup>2</sup> Change		.172		
F Change		19.896***		

model 2			model 3		
B	$\beta$	t	B	$\beta$	t
1.153		7.460***	.689		4.499***
.124	.113	2.936**	.165	.149	4.132***
.071	.103	2.607**	.013	.019	.499
-.031	-.100	-2.495*	-.021	-.066	-1.761
-.042	-.070	-1.830	-.012	-.020	-.553
.208	.176	4.439***	.162	.137	3.688***
.253	.289	7.314***	.211	.241	6.443***
			.278	.355	9.190***
.188		.292			
.179		.283			
22.148***		33.805***			
.016		.104			
2.252***		11.657***			

\* $p<.05$ , \*\* $p<.01$ , \*\*\* $p<.001$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서 제시하였다. Sobel test 결과는

가정폭력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2.606, p<.001$ ), 학교폭력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3.191, p<.001$ ). MacKinnon et al. [16]의 연구에 의하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검증결과는  $\pm 1.96$ 보다 클 때에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Sobel test 검증의 결과는  $\pm 1.96$ 보다 크게 나타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경험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과의존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5. 소벨테스트 결과  
 Table 5. Sobel test Results

Variable	A(SE)	B(SE)	Zab
domestic violence → smartphone overdependence → mental health	.163 (.060)	.278 (.030)	2.606***
school violence → smartphone overdependence → mental health	.153 (.045)	.278 (.030)	3.191***

#### IV.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폭력피해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피해경험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폭력피해 경험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경험은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사회적 관계가 가까운 부모나 또래로부터 겪는 폭력경험은 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되어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거부적,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갖거나 부부간 폭력 및 아동폭력을 경험한다면 부모가 아닌 또래, 혹은 다른 친밀한 자신의 도구와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애착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일 경우 과의존이 높아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여 행복감이 낮아진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 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하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8].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위기가정일수록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19 이후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스마트폰 활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정 내 부모와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아동세대에게 미디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훈육한다면 가정 내 부모와 아동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미디어 사용은 사회성 및 언어발달, 학습향상 등에 도움을 진작하므로, 적절한 미디어 사용교육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은 가정은 아동의 인터넷 활용을 유익한 정보이용이나 과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반면,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터넷 활용은 주로 또래 간 대화나 게임, 유행영상 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따라서 아동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또래 간 긍정적인 소통과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폭력이나 유행영상,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에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마트폰 의존, 정신건강이 사회문제로 화두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예방적 지원보다 사후에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이 이미 발생하거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상태라면 다시 이전상태로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 지원 서비스이다. 아동은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과 불안함, 걱정과 근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훈련 및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요구하였다 [4].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유지, 학습 및 진로상담, 자신만의 생활 및 시간관리에 대한 상담요구가 높았다 [2].

넷째,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아동참여와 활동 등을 온라인 활동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에서 실시한 48개 기관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기관이 코로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연기, 아웃리치 감소,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감소, 오프라인 청소년활동 전면 취소 등으로 나타났다. 신속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였지만, 온라인 기반 인프라 부족, 종사자의 디지털 문해역량 부족, 익숙하지 않은 사업환경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8].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활동지원 요구가 많았던 만큼 [7]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V. 결 론

코로나는 특정국가 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지구적 위기상황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다. 코로나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배제에 놓인 아동 및 가족에게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망 확보나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상당부분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코로나 19가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차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 분석과 지원체계를 위한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17]

## References

- [1]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 "COVID19-Mental-Health-Survey", KSTSS. 2020. 4.7. <http://kstss.kr>
- [2]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 "Daily

- life changed to COVID-19. Youth Survey”, Youth Counseling Issue paper. 2020. [http://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002.pdf](http://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002.pdf)
- [3] Chung, Ick-Joong & Lee, Sue-Jin & Kang, Hee-Ju,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69(4), pp. 59-90, 2020. doi.org/10.24300/jkscw.2020.12.69.4.59
- [4] Kim, Yoon-Na & Lee, Hee-Youn. “Changes in youth life after Corona 19 Implications of Juvenile Protection Policy”,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Vol. 33(2), pp. 2-27, 2020. <https://doi.org/10.24300/jkscw.2020.12.69.4.59>
- [5] Park, Young-shin & Kim, Uichol.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4), pp. 801-836, 2008
- [6] Min, Dae-Kee.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friends attachment on mental health in childhoo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5(2), 293-304, 2014. <http://dx.doi.org/10.7465/jkdi.2014.25.2.293>
- [7] Goyang City Youth Foundation. “COVID-19-Youth Survey”, 2020.6.26. [https://www.gcyf.or.kr/j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09&sst=wr\\_hit&sod=desc&sop=and&page=1](https://www.gcyf.or.kr/j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09&sst=wr_hit&sod=desc&sop=and&page=1)
- [8] Park, Sun-Young. “Challenges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the post COVID-19 era”,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Vol 6(4), pp. 173-194, 2020. <http://dx.doi.org/10.36697/skya.2020.6.4.173>
- [9] Jiao, W. Y., Wang, L. N., Fanjg, S. F., Jiao, F. Y.,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 Journal of pediatrics*, Vol. 221, pp. 264-266, 2020. <https://doi.org/10.1016/j.jpeds.2020.03.013>
- [10] UN.,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2020”, [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2020-04/160420\\_Covid\\_Children\\_Policy\\_Brief.pdf](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2020-04/160420_Covid_Children_Policy_Brief.pdf)
- [11] Lee, Bong-ju, Jang, Hui-seon & Shin, “Won-Yeong.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18. <https://www.goodneighbors.kr/business/research/report.gn#none>
- [12] Straus, M. A., et al.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2, pp. 249-270, 1998.
- [13] Seo, Mi-Jung. “Participation in Bullying: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9(5), pp. 79-96, 2008.
- [14]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2018.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ldx=65914](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ldx=65914)
- [15]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1986.
- [16] MacKinnon, D. P., et al.,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Vol. 8(1), pp. 1-35, 2002. DOI:10.1037//1082-989X.7.1.83
- [17] Yang, Hyun-Joo, Byun, Eun-Kyung. “Factors Influenceing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5, pp.251-258, Sep. 2022
- [18] Kim, Jin-young, Park, Jung-Hee, Moise, Muhire, Yoon, Byoung-Gil, Kim, Yong-Seok.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10. No. 3, pp.1-10, 2022.